

‘참사·폭력’ 상처 받는 아이들... 학교엔 상담교사가 없다

전체 학교 3곳 중 1곳 전문상담사조차 없어 참사 피해 학생 나온 서울 학교 중 1곳 해당 사립학교 더 부족...초등학교는 20%만 배치 내년 신규 상담교사 선발규모, 올해 3분의 1

교육계에서 ‘이태원 참사’를 직·간접적으로 겪은 학생들의 트라우마(Trauma·정신적 외상)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학교에 배치된 전문 상담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교육부의 올해 4월 기준 공립학교 전문상담인력 배치 현황에 따르면, 정규·순회 전문상담교사와 전문 상담사 수를 전국 공립학교 수로 나눈 ‘배치율’은 67.2%로 집계됐다.

전국 공립 초·중·고 3개교 중 1개교에는 전담 상담인력이 없다는 이야기다.

정규 전문상담교사와 순회교사로 그 범위를 좁히면 배치율은 45.6%로 전체 학교 절반에도 못 미친다.

현행 ‘초·중등교육법’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해 모든 학교에

는 상담실과 전문상담교사를 두도록 규정돼 있지만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다.

전문상담교사는 2009년부터 학교 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학생들을 돕기 위한 학생안전통합시스템, 이른바 위(Wee)프로젝트가 시작되며 늘기 시작했다.

학교폭력 등 다양한 이유로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늘면서 그 필요성이 강조돼 왔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또래 생활을 하지 못한 학생들 사이에서 우울감을 느끼는 ‘코로나 블루’로 역할이 중요해졌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고등학교와 중학교에 비해 초등학교에, 공립보다 사립학교에 상담교사가 더 부족하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통계로 보는 한국교육’에 따르면, 정규직이나 기간제 전

문상담교사가 1명이라도 배치된 학교 비율은 지난해 기준 고등학교 53.3%, 중학교 48.8%로 절반 수준이다. 초등학교는 20%에 그쳤다.

지난해 사립 초등학교에는 정규직 전문상담교사가 단 한 명도 없었다. 국·공립 학교에는 1071명이 배치됐다. 다만, 전체 초등학교 중 사립은 1.2% 정도에 그친다.

사립 중학교에는 총 299명이 배치돼 있어 국·공립(1166명)의 26% 수준에 불과하다. 사립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300명으로 국·공립(747명)의 40% 정도에 그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참사로 학생 사망이나 부상자가 나온 학교에 ‘특별상담실’을 설치하고 심리 치료를 지원 중이다. 교육청에 따르면 전날까지 11개교가 지원을 요청해 와 특별상담실이 설치됐거나 협의 중이다.

이 중 10개 학교에는 전문상담인력이 배치돼 있다.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이 언제라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인력이 없는 다른 1개 학교에는 교육지원청 ‘위센터’ 상담인력이 지원을 나가 심리치료를 진행 중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참사 현장 인근에 있는 학교를 비롯해 그 외 지역에서도 참사

를 목격했던 학생,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했던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심리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부족한 상담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외부 기관과 협약을 맺었지만, 이태원 참사로 성인 대상 상담 수요도 늘어나면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청 관계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등과 유관기관 협의회를 구성해 상담이 집중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받고 있다”면서도 “이번 참사로 다른 기관에서도 상담 요청이 포화 상태라며 지원에 어려움을 표시하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이번 참사 뿐만 아니라 심리 상담을 요청하는 학생들이 늘어난다는 점은 통계로도 알 수 있다.

올해 국정감사 기간 중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보면, 학교에 설치된 상담실인 ‘위클래스’에서 이뤄진 상담 건수는 지난해 319만 9953건으로 1년 전 231만989건보다 38.5% 증가했다.

학생과 학부모 1명당 0.6차례의 상담을 이용한 것이다.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운영하는 ‘위센터’

상담 건수 역시 지난해 59만3879건으로 1년 전보다 9.6% 상승했다.

상황이 이렇더라도 정부의 교사 정원 감축으로 내년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뽑는 전문상담교사 수는 246명으로, 올해(801명) 규모의 3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친다.

이강찬 전문상담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상담교사가 있는 학교는 없는 학교에 비해 학교폭력 빈도가 줄고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다”며 “교육부도 2018년도에 맺은 단체협약에서 ‘학생 수 101명 이상인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 1명을 배치하도록 노력한다’고 했지만 아직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1교 1인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목표로 정원 확대를 위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지속해 협의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번 참사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은 학교 내 위클래스, 지역 위센터에서 우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상담전화 1388),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02-3706-0500), 다 들어줄 개 애플리케이션, 상다미쁨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서선욱기자



캄보디아 수출된 국산담배 밀수입 적발

밀수입하려 한 A(50대)씨 등 3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부산본부세관 직원들이 2일 오전 부산 강서구 부산세관 신항지정장치장에서 압수한 밀수입 국산담배를 확인하고 있다. 세관은 캄보디아로 수출된 국산담배 12만1680갑(시가 5억원 상당)을 국내로

‘불불불’ 화재 건수 겨울 가장 많아

화재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계절은 겨울로 확인됐다.

2일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를 분석한 결과 겨울철에 평균 618건의 불이났다.

겨울에는 연중 평균 화재 건수 5.6건에 비해 6.9건으로 더 많았을 뿐만 아니라 사망자 수에서도 연중 평균 0.05명보다 0.09명으로 더 많았다.

인명피해 집계에서도 겨울 255명, 봄 206명, 여름 148명, 가을 130명 순으로 나타났다.

재산피해 규모에서는 봄 2669억원, 겨울 456억원, 가을 317억원, 여름 238억원으로 집계됐다.

피해 규모가 봄에 훌쩍 뛴 것은 대형산불의 영향이다.

2018년 이후 화재 건수를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화재 건수는 증가했다.

연도별 화재 건수는 2017년 621건에서 2018년 766건으로 증가했고 2019년 593건, 2020년 521건으로 감소했다.

2021년에는 590건으로 2020년보다 증가했다. 화재 원인은 부주의가 51.1%로 절반을 넘었다. 전기적 요인 20.7%, 기계적 요인 12.8%로 나타났다. 부주의는 담배꽂이가 31.5%, 불씨방치 20.2%, 쓰레기소각 14% 순으로 조사됐다.

화재 장소는 비주거 2960건(29.0%), 야외 및 도로 2637건(25.9%), 주거 2423건(23.8%), 차량 등 1202건(11.8%), 임야 970건(9.5%)이었다.

주거유형에서는 단독주택 61.0%, 아파트 17.5%, 다가구 6.4% 순으로 나타났다.

강원소방본부는 화재예방 대책으로 7대 전략 27개 중점 추진과제를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인명피해 저감 특별시책으로 시각 장애인용 촉지형 피난유도선 제작 보급, 취약계층 주택용 간이소프링클러 설비를 추진한다.

윤상기 강원소방본부장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지역의 특수성이 접목된 예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환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